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 150년의 선교 역사 보충 자료

줄리아 톨로크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실천하는 믿음 · 소망 · 사랑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 150년의 선교 역사 보충 자료

저자: 줄리아 톨로크

©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475 Riverside Drive, 15th floor

New York, NY 10015

unitedmethodistwomen.org

이 보충 자료와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자료들은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비상업적인 목적일 경우 다음의 문구를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 150년의 선교 역사 보충 자료〉에서 발췌함. ©2020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모든 저작권이 보호되어 있음. 허락을 받고 사용.” 이 책 안에 있는 저작권 보호가 된 자료인 경우는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는 사용될 수 없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목적문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여성의 공동체로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체험하며,
창조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를 도모하며,
교회의 세계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있다.

비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전 세계 여성,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을 행동으로 실천한다.

비전의 실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 그리스도 안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한다.

우리는 성장할수 있도록 조직되며,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행동으로 이끄는 유연한 구조를 갖춘다.

우리는 세계의 여성들과 소녀들이 공동체와 단체, 직장과 교회 및
공적기관의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킨다.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도록 자비로운 봉사와 옹호를 통해
불공정한 정책과 체제를 바꾸려 일한다.

우리는 적합한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여 개인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인도하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목차

1장: 서문 | 5

2장: 사회 정의 캠페인 | 6

3장: 총회 | 11

후주 | 17

저자 소개 | 19

1장

서문

1869년 감리교 해외 여성교부를 세운 8명의 여성 중 6명의 얼굴이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 선교 교재의 표지에 나와 있다. 이 여성들에 대해 여러 질문을 하게 된다. 이 여성들이 사진을 찍을 당시 다른 두 명은 어디에 있었을까? 사진 속에 있는 이 여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들은 인도에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 자금을 모아야 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을까? 혹은 그들의 남편들이 계속 협조해 줄지를 우려하고 있었을까? 선교국의 남성들이 무엇이라 할지를 걱정하였을까?¹ 그들 중에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지는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을까? 가족들을 걱정하지는 않았을까? 혹은 남북 전쟁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때에 모임을 가진 이 여성들은 국가의 미래에 관해 우려하고 있었을까? 그들이 만난 3월 23일 보다 약 3주 전에 대통령 임무를 시작한 윌리시스 그렌트 새 대통령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을까?

이 8명의 보스톤의 여성들은 모두 그들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었다. 이 여성들의 걱정이 오늘날 우리의 걱정과 많이 다를 것 같지가 않다. 각 시대마다 여성들은 개인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이 다른 가운데, 계급, 인종, 그리고 성의 문제들로 씨름한다. 여성교회의 초기 역사에 관련된 여성들은 해외 여성들의 삶의 환경을 알게 되면서 큰 도전을 받았다. 남부에서는 해방된 노예들을 위한 국내 선교가 시작되었다. 도시의 비인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디코네스 운동이 있었다. 짐 크로우 법안에 대응하며 인종 정의에 대한 촉구가 더 강해졌다. 세계 전쟁 후 평화와 인권에 관한 운동이 더욱 촉구되었다.

오늘날의 현실은 걱정과 우려로 더욱 가득 차 있다. 뉴스나 소셜 미디어는 테러, 대량 학살, 국수주의, 인터넷 보안, 여성에 가해지는 범죄, 혐오 범죄, 기후 이상, 임금 격차, 교회 내에서의 갈등 등의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 오늘의 “우려의 시대”가 과거 여성들의 삶과 많이 다른가? 그들도 문화, 종교, 정치, 경제 운동을 하며 살고 성장했다. 우리는 그들이 성취한 일들을 축하한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현실적 고민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들은 기도하고, 공부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일하고, 참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깊이 있는 삶을 살았다. 여성,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선교를 하는 21세기의 여성인 우리들도 깊이 있는 소명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보충 자료는 현재 여성교회의 사업들과 교단이 당면한 문제들을 정리해 준다. 2장은 현재의 캠페인, 자료, 150년 역사를 통해 진행된 사회 정의 사역의 주요 사업의 개요를 다룬다. 3장은 2020년의 총회를 다루면서, 여성교회와 전신 기관들이 교단의 변화, 분리, 통합 속에서도 항상 소외된 여성들,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신념을 굳건히 지켜왔음을 살펴 본다.

학습 인도자를 위한 준비 사항과 토론 질문들이 2장과 3장 뒤에 제공되어 있다. 참가자들을 위한 자료들을 복사해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2장

사회 정의 캠페인

배경: 여성교회와 사회 정의

처음 시작부터 선교회는 건강 돌봄과 교육 사역의 소명을 받고 해외에서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였다. 선교회의 여성들은 남부에서 해방된 노예들을 교육시키고, 서로 함께 배우고, 국내와 해외에서 다른 여성들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심을 가지고 사역했다. 19세기 말에 그들은 디코네스 운동을 통해 전문 사역자 훈련을 받고, 지역이 개발되면서 지역센터, 고아원, 여성의 집 등을 설립했고, 보다 개선된 노동 환경을 옹호했다.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들은 평화와 인권 운동에 앞섰고, 글로벌 연대와 교회 일치 운동을 위해 노력했다. 20세기에는 그들은 선교회 내의 인종차별을 인식하고, 인종 정의를 위한 교단의 사역에 큰 역할을 했다. 교회 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여성교회는 “계속하여 변함없이 그 신념을 유지했다.”² 이 신념을 바탕으로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했고, 여성교회의 선교의 핵심이 되는 풍부한 신학적 영적 기초를 마련했다. 조용하지만 굴복하지 않는 정신과 목적이 있는 사역을 계속해 왔다. 여성교회의 국장인 해리엇 제인 올슨은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지속되어 온 사회 정의 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처음부터 우리 감리교와 복음연합형제 교단의 여성들은 우리의 선교가 영적인 사역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 기증, 교육, 섬김을 통해서 신앙을 실천한다. 과거나 현재나 우리 여성들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여성, 어린이, 청소년을 삶을 개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역에 참여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사역을 계속할 것이다.

앞서간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다른 여성들과 연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의를 위한 사역을 한다는 것은 불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것을 고발하고, 마음과 정신과 제도를 변혁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 함을 뜻한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여성의 선교 운동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건강과 평화가 넘치는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사역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이 두 사역은 하나의 선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정의를 옹호하고 불의에 처한 사람들을 섬기는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여성교회는 세계의 정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소명감에 입각하여 과거에는 전족, 폭력, 여성 설교 금지 등의 차별 정책에 대항했고, 오늘날에는 대량 수감, 산모 건강, 부의 불균형, 기후변화의 개선을 위해 힘쓰며 그리스도를 따른다.³

2016-2020 사회 정의 캠페인

현재 “세상에 참여하기” 운동은 우리가 여성교회의 초기 역사부터 시작되어 온 사회 정의 사역을 꾸준히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6-2020년 기간 동안 여성교회는 인종 정의,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건강 돌봄, 경제적 정의, 지구 보호를 위해 사역해 왔다. 그 사역들은 다음의 4가지 우선 순위로 나타난다.

- 산모와 어린이 건강
- 유색 인종 공동체의 범죄화
- 경제적 불평등
- 기후 정의

이 네 가지 우선 순위에 관한 교육 자료나 실천을 위한 행동 자료는 여성교회의 전국 사무실을 통해 구할 수 있다. 현재 이 네 가지 우선 순위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는 운동은 다음과 같다.

- 산모 사망 근절
- 학교에서부터 감옥으로의 수송관 중단
- 모두를 위한 생활 임금
- 모두를 위한 공정 에너지

이 우선 순위에 관한 자료들은 unitedmethodistwomen.org/action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같은 웹사이트에서 추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아래는 이 네 가지 캠페인의 내용이다.

산모 사망 근절

건강 돌봄의 사역은 우리의 선배 여성들의 선교 사역에서 익숙한 일이었다. 건강 문제가 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초기 선교회가 인도나 다른

국가의 여성들의 건강 문제에 관해 배웠듯이, 최근 여성교회는 “건강과 온전함” (1987년)과 “세계 건강”(2001)이라는 주제로 선교학교에서 배웠고, 여성 건강의 중요성을 옹호했다.

오늘날 안전하고 포괄적인 여성의 건강 돌봄 계획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에서 산모 사망률이 24 퍼센트 증가 되었다. 산모 사망 근절 캠페인은 여성의 건강 문제를 시급히 돌보도록 촉구했다. 2016-2020 년 기간에 이 캠페인은 교육과 산모 건강 보험에 중점을 맞추고, 유아 사망을 종식을 촉구하고, 미국의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 간의 산모 사망률이 현저히 차이나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자료는 unitedmethodistwomen.org/mchealth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수송관을 중단하기

교육은 가난, 문맹, 문화적 장벽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오래 간주 되어 왔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여성교회의 전신 기관들은 그 초기부터 학교를 세우는 등 교육프로그램에 전념 해 왔다. 19세기 말에는 이민 공동체, 원주민 공동체를 위해 사역했고, 1980년대에는 어린이 보호 기금(Children’s Defense Fund)과 어린이를 위한 캠페인(Campaign for Children)과 협력 하였고, 후에 공공 교육에 초점을 두었으며, 2005년에는 선교 학습을 했다.

오늘날 이 사역은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수송관을 중단하는 캠페인을 통해 계속된다.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수송관”은 유색 인종 어린이와 청소년이 범죄자가 되거나 범죄자로 간주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정책과 그로 인해 유색 인종을 집중 검색하고, 체포하고, 수감하는 현실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선교회 캠페인의 목표는 이러한 정책과 행동들을 수정하며, 학교에서 인종간의 차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여선교회 회원들이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성경 공부, 포스터, 해설서, 그리고 다른 자료들을 unitedmethodistwomen.org/racial-justice/school-to-prison-pipeline에서 찾을 수 있다.

모두를 위한 공정 에너지

오늘날 기후 변화로 인해 사회 활동가들은 정부 기관에서 화석 연료를 줄이고 재생 가능한 깨끗한 에너지 자원을 더 쓰도록 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여선교회는 1970년대의 파행적인 기업 비리들을 개혁하기 위하여 창시된 기업 책임 다종교 센터(the 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에 함께 하며 깨끗한 환경을 위해 힘썼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에 여선교회는 유엔의 해양법 대회를 인준하는 것을 옹호하도록 회원들을 교육했다. 90년대에는 염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 종이를 쓰는 정책을 시작했고 회원들도 이를 실천할 것을 권유했다. 친환경 “녹색 회의”를 위한 지침서를 만들고 전 여선교회에서 그것을 실행하도록 했다. 또한 선교 학교에 환경에 관련된 과목들을 첨가하여 1985-1986년에는 “하나님의 땅을 돌보며” 그리고 2016-2017년에는 “기후 정의: 희망과 행동을 위한 부름”이라는 공부를 했다.

오늘날 환경 정의 문제는 시급하다. 여선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정한 에너지” 캠페인을 통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업과 정부가 재생 가능 에너지를 더 쓸 수 있도록 촉구한다. 이 캠페인은 또한 여선교회의 “환경 보존을

위한 13가지의 지침”을 널리 알려서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책임감 있게 친환경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모두를 위한 공정한 에너지 캠페인의 실제적 안내, 전 세계적 연구, 세미나, 팟캐스트 등은 unitedmethodistwomen.org/climate-justice에서 찾을 수 있다.

모두를 위한 생활 임금

초기 선교회 여성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악화되고 있던 해외 여성과 어린이들의 고통에 가슴 아파 하면서 가난을 없애기 위한 사역을 했다. 이 여성들은 또한 자신들의 지역 사회에서 안전하지 못한 노동 환경, 너무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주거 환경, 착취를 하는 고용주와 정부 아래서 고통받는 이들을 목격하였고, 도심에서는 이민 공동체에서 빠른 인구 증가와 가난의 악화로 힘들어 하는 이들을 보았다. “경제 정의”를 위해 디코네스 운동이 시작되었다. 여선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전국 선교 기관들은 오늘날 그들의 사역이 1900년도 초에 가난한 지역에서 사역을 한 역사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인식한다.⁴

지난 수년에 걸쳐서 이 기관들은 “부와 가난”(1966-1967), “사회복지의 난관”(1974-1975),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의 얼굴”(1988-1989), “세계 경제”(1993-1994), “국제화와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2006), “가난”(2012-2013), “돈에 관하여”(2018-2019) 등과 같은 선교 공부를 통해 경제 정의 옹호를 더욱 강하게 했다. 1983년의 전국 세미나의 주제는 “경제와 신앙 공동체”였다.

여선교회는 1940년대에는 사회 보장 제도를 가사노동자와 농부에게도 부여하도록 옹호했다. 오늘날에는 임금격차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모두를 위한 생활 임금” 캠페인을 통해 경제 정의를 위해 싸운다. 이 캠페인은 여성교회 회원들과 그 주변 공동체들이 모든 노동자들이 “생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정부와 시정부가 법안을 만드는 것에 압력을 가하게 한다. 다른 종교 단체나 노동 조직들과 연대하여 이 캠페인은 사회 보장제도를 줄이는 예산 삭감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도적 인종 차별이 어떻게 임금 격차를 불러 일으키는지를 교육하고, 법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 다른 행동 방법에 대해 unitedmethodistwomen.org/living-wages에서 찾아 본다.

학습 인도자를 위한 준비 사항과 수업 자료

현재 사회 정의 캠페인들은 여성교회와 그 전신 기관들의 역사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수업 인도자들은 엘렌 블루의 책을 잘 공부하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또한 본인 나름대로의 이해도 새롭게 해야 한다. 사회 정의 사역이 “정치적이다”라는 비난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회원들과 공부하는 사람들이 개인 영성과 사회 영성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선배 여성들은 사회 정의 사역이 그들의 영적 소명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잘 알았다. 그들은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했다. 이 사역을 위해 그들은 교회, 선교회, 국회위원, 더 큰 공동체들을, 그리고 그들 자신을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여성교회의 사회문제 참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는 unitedmethodistwomen.org/action에 나와있다. 사회 행동의 성서적 원칙에 관한 안내서는 unitedmethodistwomen.org/members-leaders/action/why-shouldigetinvolved.pdf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네 가지 캠페인에 관해서는 여성교회의 웹사이트 unitedmethodistwomen.org/action에 많은 자료들이 있다. 성경공부, 성경 구절, 팟캐스트, 동영상, 교실에 전시할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거나 찾을 수 있다. 새로운 자료들도 있다. 시사 문제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하면, 여성교회의 “신앙 토론”의 자료들을 unitedmethodistwomen.org/faithtalks에서 찾을 수 있다.

리스판스 잡지를 구독하면 현재의 선교와 다른 영성 혹은 교육 자료들을 신속히 접할 수 있다. 디지털 구독을 하면 최신 잡지와 지난 잡지를 모두 구독 즉시 볼 수 있다. unitedmethodistwomen.org/response에서 구독한다.

학습 인도자들은 역사적 배경 그리고 다른 캠페인과의 연결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포스터 등의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다. 수업 참가자들의 이야기, 토론, 성찰 등은 역사와 현 선교 과제를 연결해 준다. 다음은 토론과 성찰의 질문의 예이다.

1. 2020의 영적 성장의 교재는 “불안한 세상에서 평화를 찾기”이다.
 - a. 오늘날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 b. 우리 선배 여성들과 오늘날의 여성들의 세상 경험의 차이는 무엇인가?
 - c. 선배 여성들은 불안을 어떻게 경험하였을까? 선배 여성들의 불안을 야기한 요소들을 무엇이였을까? 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었을까?
 - d. 선배 여성들은 어떤 영성 실천을 하였는가? 우리가 하는 영성 실천과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가? (토론에 도움이 필요하면, “불안한 세상에서 평화를 찾기”에 나와 있는 영성 실천 방법들을 찾아 보라. 혹은 영적 성장 과목을 듣고 있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한다.)
2. 여선교회 선교 역사 도표 (오늘날 우리의 역사도 포함하여)를 만들어 보라. 여성의 선교사역에 영향을 준 주요 “세계” 사건들은

무엇이였는가? 당신의 가정 그리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에 영향을 준 “세계” 사건들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영향을 주었는가? 이 사건들을 역사 도표에 포함시킨다.

3. 초기의 선교 역사가 오늘의 선교 사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초기의 선교 활동이나 캠페인이 오늘날의 선교 활동이나 캠페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4. 해리엇 제인 올슨 국장은 2015년 10월의 “책임감 있게, 당신을 위하여”라는 글에서 여성들은 “자신 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 웰빙이나 평화에 어떤 공헌을 하는가? 혹은 하지 않는가?
5. 우리의 선배 여성들이 했던 생각들 중에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 여성들의 생각이 그들의 사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3장

2020년 총회

배경: 여성교회와 끈기

엘렌 불루는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에서 여성교회를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승인한 2012년의 총회의 결정은 “2020년 총회 후에 어떤 교단의 구조 변화가 오든지 극복할 수 있게”⁵ 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저자는 또한 “2020년의 총회가 교단의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기에 큰 도전이 된다”라고도 한다.⁶

여성의 선교 기관의 역사에서 교단의 변화로 인해 큰 도전이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엘렌 불루의 책의 1장과 2장에서는 초기 역사에서 남성들이 교단의 기관들과 총회를 주도하고 있던 시대에 여성교회 기관으로 공식 인정 받고자 하는 노력을 기록하고 있다.⁷ 이 역사를 통해서 여성 단체들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거나 해체되는 과정이 보이고, 평신도와 여성 목회자들이 모든 권리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오래된 투쟁 이었는지를 알게 된다.⁸ 디코네스를 인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교회를 통일하고 중앙 지역 총회를 없애고자 하는 끈기 있는 노력을 해 왔음도 본다. 여권 신장을 위해서도 일했다.

조직으로 존재함이 인정이 되기는 했으나, 총회와 선교국에서 내린 결정들은 여성의 조직이 그 선교를 실행해 나가는 방법을 바꾸었다.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64년의 결정”으로, 그 이후 여성이 스스로 선교사를 보내고, 전국 선교 기관들을 운영하고, 선교에 관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교육시킬 수 있는 권한을 박탈 당했다.⁹ 그러나 여성들은 이사회와 스태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1968-1972동안 연합감리교회로 교단이 새로 조직되자, 여성들은 1964년의 결정에서 인정된 권리를 새 교단에서도 지키기 위해서 힘썼다.¹⁰ 그 이후로 선교국 자체가 여러 차례 구조 조정되었다.¹¹ 그러나 여성교회는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사역이라는 목표에 충실하였다. 테레사 후버는 1968-1972년 간의 사역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수백년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권력은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들이 좀 더 포용 되도록 변혁하는 것은 결코 값 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¹³

2019년의 특별 총회에서와 마찬가지로 2020년의 총회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는 연합감리교회가 교회에서의 성소수의 역할과 인권에 지난 40년 동안 계속해 온 논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갈등의 근본은 성서 해석, 다원주의 그리고 포용주의에 관한 의견대립이다. 그리고 연합감리교회와 여선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룹들의 영향력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2020년 총회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다. 2019년 총회 이후에 생각이 바뀐 사람들도 있다. 또 그 총회 후에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더 확고해진 사람들도 있다. 교단의 미래에 관한 계획과 선언서들이 웹사이트와 다른 소셜 미디어에 많이 나와 있다. 2020년 총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 아직 다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보충 자료에서는 몇가지 안들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여선교회의 입장도 설명한다.

여러 법안들

“다음의 연합감리교회”(UMNext)는 부활의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아담 해밀톤 목사가 인도하는 중도/진보 그룹이다. 이 그룹이 제출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단을 분리하지 않는다. (2) 장정에 있는 “성소수자에게 해를 끼치고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모든 내용을 제거한다. (3) 현재의 교의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4) 결혼 주례는 목사가 결정하고 안수의 기준은 연회가 결정하는 현재의 기준을 유지한다. (5) 감리교가 새로운 모양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6) 21세기 교회를 위한 위원회를 조직한다. 이 법안에 여선교회에 관한 특별한 조항은 없다. 교단 탈퇴 후에도

계속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 중에는 웨스패스,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 총회역사보존위원회 등이 포함된다.¹⁴ 2020년 총회에 제출된 법안은 umcnext.com/legislation 혹은 umcnext.com/wp-content/uploads/2019/09/NextGenUMC_LegislativePetitions.pdf에서 볼 수 있다.

바드-존스 법안에 의하면 각 연회는 “전통 감리교회,” “열린 감리교회,” “진보 감리교회” 중 한 교단을 선택하게 된다. 이 교단 이름은 잠정적인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일치: 앞으로 전진하는 전략, 2019-2022”라고 명칭이 붙은 이 법안은 데이비드 바드와 스콧 존스 두 감독에 의해 2019년 7월에 발표 됐다.¹⁵ 새로운 교단이 서로 운영과 재정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연회들은 스스로의 교단을 정하게 된다. 개체 교회는 연회의 결정을 따를 수도 있고, 연회와 다른 교단을 선택할 수 있다. “연합감리교회”라는 명칭은 이 세 교단의 산하 조직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존스 감독과 바드 감독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일치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몇 년간 교회들이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들을 생각하면서 이 안을 기획했다고 한다.

바드-존드 법안에 따르면 이 세 교단 모두 교인 수에 따라 총회재정행정위원회, 웨스패스, 연합감리교 출판사, 총회역사보존위원회 등에 참여하게 된다. 다른 기관과 위원회들은 “열린 감리교회”에 의해 이사회가 선임되고 운영된다. 요청이 있을 경우 이 기관과 위원회들은 “전통감리교회”와 “진보감리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제공해 준다. 바드-존스의 계획은 여선교회를 언급하지 않는다.

인디아나폴리스 법안도 다른 계획들과 비슷하고,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교단 분리를 제시한다.¹⁷ “연합감리교회”라는 이름을 모두 지속해서 쓸 수 있고 “전통주의 연합감리교회,” “중도-보수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진보 연합감리교회”로 교단이 분리된다. “전통주의” 교단은 현재 장정에 있는 “동성애 실행”에 관한 제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다. 연회들은 어느 교단에 속할지를 투표로 정한다. 연회가 결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중도-보수” 교단에 속하게 된다. 해외 연회들도 어느 교단으로 속할지를 정할 수 있지만, 스스로 정하지 않을 경우 “전통주의” 교단으로 속하게 된다.

인디아나폴리스 계획에는, 여선교회, 웨스페이스, 총회구호위원회, 연합감리교 출판사 등이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로 전환되어, 각 기관이 스스로 선정하는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각 기관은 자유로이 어느 교단이든 이 기관이 필요한 곳이면 섬길 수 있다.¹⁸

N.E.W. 법안은 “전진하는 연합감리교회”(UM-Forward) 단체가 기획한 안이다. 2019 특별 총회에서, 전진하는 연합감리교회 단체는 동성애에 관한 모든 차별적 언어를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단순한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N.E.W. 법안은 “유색 인종과 성수자의 공동체의 목소리, 지혜, 경험을 바탕으로”으로 한다.¹⁹ 이 법안은 4개의 새로운 교단의 설립을 제안한다. 즉, “전통 감리교회, 중도 감리교회, 진보 감리교회, 해방 감리교회의 네 가지 교단이며, 이 이름들은 일시적이 것이며, 후에 각 교단에서 스스로 정하고 바꾼다. 이 교단들은 서로 완전한 상통의 관계가 되며, 전세계적 웨슬리 연합의 일부가 된다”라고 설명한다.²⁰ 여선교회와

같은 기관들은 독립 기관으로 운영 되고 이 네 교단 모두를 섬길 수 있다.

이 법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과도기 위원회를 설립하여 분리 계획을 더 세분화한다. 감독회의, 다른 교단의 지도자 기관, 교단 위원회, 그리고 전문 중재자와 상의하여 분리 계획의 초안을 만든다. 2024년 전에 특별 총회를 계획하여 분리 계획을 확정한다. 교단이 분리 될 때까지 동성애와 연관된 교회의 고발, 고소, 재판, 그리고 모든 제한을 일시 중지한다.²¹ 총회에 제출된 법안을 um-forward.org/new-plan에서 읽을 수 있다.

“커넥셔널 테이블(Connectional Table, 교단 운영위원회): 미국 지역 연회 창설”: 2019년 9월 12일, 연합감리교회의 교단 운영위원회인 커넥셔널 테이블은 미국을 “지역 연회”로 만드는 법안을 발표했다.²² 이 법안은 연금, 세금, 그리고 혜택 등 미국에만 관련되는 사안들은 총회에서 다루지 않아도 되도록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총회는 세계적으로 해당되는 사안 만을 다루게 된다. 이 법안은 2단계에 걸쳐서 지역 연회 구조를 실행하게 되어 있다. 이 법안에는 성정체성의 문제는 다루어 지지 않는다.

여선교회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 법안은 “지역 연회 기관들”이라는 제목하의 552.2조항에서 “지역 연회는 미국 내에서 교회의 사역에 중요한 기구, 기관, 위원회 등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한다.²³

여선교회와 포용성

2019년 3월 23일 여선교회 15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해리엇 제인 올슨 국장은 현 위기

상황에 관해 언급하며 여선교회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었다. “세상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여선교회의 사역을 인도해 주심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올슨 국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촉구하였다. 여선교회의 주 목표인 변혁적 교육, 지도자 양성, 영적 성장, 섬김과 옹호가 계속될 것임을 확인했다. “여선교회의 사역은 항상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여선교회는 계속 “포용적이고 환대를 베푸는 장이 되고, 성정체성의 다양성을 포용하며, 총회 후에는 우리 사역과 이미 함께 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여선교회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인정 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구조 조정 과정을 주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큰 변화 안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변화가 우리가 소명 받은 사역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의 여선교회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격려했다.²⁴

2019년의 특별 총회 후에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많은 회원들이 2020년의 총회와 지역 총회에서 여선교회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대의원으로 출마했다. 여선교회가 각종 법안을 검토하고,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며, 교회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영향을 주는 결정 사항에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선교회는 총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미래에도 계속 선교 사역을 할 것이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전국 조직은 2020년 총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였다.

- 어린이 안식일: 10월의 세째 주일을 “어린이 안식일”로 정한다.

- 소녀 옹호: 소녀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온전한 가능성을 저해하는 모든 환경을 시정하기 위해 옹호 사역을 한다.
- 여성의 위치: 모든 여성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교육과 건강에 관해 평등한 대우를 받고 여성에 관한 모든 폭력이 종식되는 사역에 교회가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미국에서의 투표권자 권리 보호: 투표권자의 억압을 지적하고, 모든 공동체가 투표장에서 전적이고 평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

총회 법안을 통해 옹호 사역을 함과 동시에, 여선교회는 성소수자 청소년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트레버 프로젝트와 타일러 클레멘티 재단에 각 5만불의 재정 지원을 했다. 여선교회의 전국 회장인 새년 피디는 우리가 문제에 당면했을 때, 우리는 신앙으로 행동 한다. 이 재정적 지원은 젊은 사람들을 지원 한다”라고 했다. 해리엇 제인 올슨은 이 재정 지원이 2019년 특별 총회의 결과에 대한 응답 이라고 설명한다. “2019년 총회의 결과에 대해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미 자살의 우려가 큰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교회는 큰 해를 입히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²⁶

학습 인도자의 준비와 수업 자료

미션 유 수업 준비를 위해서 교재를 다시 읽고, 총회 법안이 발표되는 대로 확인하고, 2020년 총회 결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본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엘렌 불루의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 책을 여선교회가 경험한 어려운 점들을

이해한다는 관점으로 다시 읽는다. 특히 6장인 “여선교회: 함께 하면 더 좋다”를 주목하여 읽는다.

- 여선교회 역사를 다시 검토한다. 특히 여선교회가 역사 초기에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과정, 중앙 총회에 관련된 역사, “64년의 결정,” 1968-1972년 기간의 재조직, 2010-2012에 결정된 조직의 독립 등 조직의 변화에 그동안 여선교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주목한다. 수업 중 다음과 같은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다.
 -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역사 도표에 첨부하고, 이 사건들이 미친 영향에 대해 토론할 준비를 한다.
 - 인도자 안내서의 부록 B를 복사하여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부록 C도 참조할 수 있다.
 - 인도자 안내서의 4장의 학습활동 1번을 사용한다. 선교 역사 회의록 (33쪽)을 사용하여 여선교회의 구조 변화가 미친 영향에 대해 더 토론한다.
 - 참가자들이 어떠한 결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누어 보는 활동을 한다. 본인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도록 한다.
- 총회 전과 후에 공식 뉴스 보도 내용을 찾아 보고, 여선교회의 전국 사무실에서 발표하는 해설 자료를 참조한다.
- 여선교회의 프로그램 고문 그룹이나 전국 이사들 중에 당신이 인도하는 미션 유에 참석할 여성이 있는지 점검해 본다. 참석할 경우 그 여성에게 총회 결정이

여선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발표하도록 초대한다. 혹은 이러한 주제를 함께 토론하는 그룹이나 기회가 있는지 알아본다.

수업 중에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화를 인도한다.

- 여선교회와 그 전신 기관들이 과거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함께 토론한다.
- 여선교회와 그 전신 기관들이 어떻게 도전에 대응했는지 함께 토론한다. 다음과 같은 예를 나눈다:
 - 미혼 여성을 선교사로 파견
 - 자금을 모으고 관리하기, 선교기관을 운영하기, 여성을 전문사역을 위해 교육시키기 (예: 디코네스) 등 비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하기
 - 1940년대에 인종 구분이 없는 주택 정책을 촉구하기
 - 중앙 총회가 존재하고 있을 당시에 인종 분리를 넘어서서 지역 선교 학교들을 운영하기
 - 성의 정의를 위해 일하기: 평신도와 목사의 여성 인권, 결정권, 건강, 교육, 정치 경제 등에서 여성 권리를 옹호하기
-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이라는 선교 교재의 제목을 생각했을 때, 여선교회를 위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들”과 “변화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 여선교회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그 답이 어떻게 바뀌는가? 회원들, 지도자들, 국제 사역, 국내 선교 기관들을 생각했을 때는 어떠한가? 왜그런가?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복사물: 다음 단계 활동

- 선교사의 이야기 중에서 관심이 가는 여성에 대해 더 연구하고 공부한다. 이 여성은 다음의 경우 중에 하나일 수 있다.

-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 책에 나온 여성
- 당신의 모임에서 이야기 된 여성
- 당신 연회의 전국 선교 기관을 설립 하는데 핵심이 된 여성
- 당신의 교회의 선교사, 세계 선교 인턴, 국내 선교사, 혹은 디코네스
- 여선교회의 지역 선교사

당신의 지역 회원들과 함께 이런 연구를 한다.

- 리스판스 잡지를 unitedmethodistwomen.org/response에서 구독한다. 모임에서 읽은 이야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들은 이야기들을 나눈다.
- 여선교회 독서프로그램의 책을 unitedmethodistwomen.org/readingprogram에서 찾아서 읽는다. 여성의 지도력, 영성, 사회정의 캠페인에 관련된 도서들이 선정되어 있다.
- 연합감리교회 총회역사보존위원회의 자료들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gcah.org/resources/womens-history에 나온 (2019년 9월 10일 기준) “그들의 이야기를 말한다: 개체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사”를

다운로드 받아서 읽는다. 이 자료집에는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당신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적 방법
- 도움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 함께 축하하는 방법
- 전시 자료
- 추천 도서
- 역사 도표

- 여선교회의 웹사이트(unitedmethodistwomen.org)를 통해 총회에 관한 정보와 뉴스를 잘 파악해 둔다. 여선교회의 이메일 뉴스레터를 secure3.convio.net.umw.site/SPageNavigator/online_subscribe.html에서 구독한다. 여선교회의 무료 뉴스레터를 unitedmethodistwomen.org/umnews에서 구독한다.
- 2020년의 총회의 결정과 그 결정이 여선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대해 당신의 연회에 있는 여선교회의 전국 이사회의 이사나 프로그램 자문위원과 이야기 해 본다.
-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핸드북>의 최근 본을 구한다. 여선교회의 정관과 부칙을 보고 여선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와 정책에 관한 정보를 알아둔다.

후주

1. 대이나 엘 로버트, <선교하는 미국 여성>, 마콘, 조지아: 머서 대학 출판부, 1998년 재판, 141-146쪽. 로버트는 보스톤의 교회와 교육 네트워크 사이의 연관성을 말한다. 해외여성선교부의 창립 회원들과 초기 지도자들이 그들의 사역을 돕고 경제적으로 후원한 남편이나 남성 친구들이 있었다고 한다. 두명의 목사, 한명의 교수, 그리고 보스톤 대학의 임시 학장이 1869년 5월 7일 총회 선교국 회의에서 이 여성들이 “스스로 누구인지를 설명하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들을 위해 협조적인 발언을 하거나 기도를 했다.
2. 바바라 캠벨, “여성 선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새 세상 전망 잡지, 1990년 9월-10월, 20쪽.
3. 해리엇 제인 울슨, “책임감 있게, 당신을 위하여: 그리스도에 뿌리를 내리고,” 리스판스 잡지, 2015년 10월, 5쪽. 이 글은 unitedmethodistwomen.org/news/responsively-yours-rooted-in-christ에 나와 있다 (2019년 9월 16일 접속).
4. 엘렌 블루,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 뉴욕, 여선교회, 연합감리교회, 2019년, 70-72쪽. “전국 선교기관의 역사적 발달” (여선교회전국사무실, 미출간, 2019년 5월)도 함께 보라. “여선교회 경제정의 선교의 유산” (여선교회전국사무실, 미출간, 2019년 5월)도 함께 보라. 이 두 자료 모두 2019년 5월의 미션 유 대회에서 수업 인도자들에게 배포되었다.
5. 엘렌 블루,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 150년 선교 역사>, 뉴욕: 여선교회, 2019년, 113쪽.
6. 블루,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 17쪽.
7. 블루,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 39쪽.
8. 진 밀러 슈미트, <충분한 은혜>, 내쉬빌: 애빙톤 출판사, 1999년, 283-84쪽. 슈미트는 감리교에서 여성이 목사로서 모든 권리를 다 인정받는 것이 20번의 총회를 걸치면서 72년이 걸려서야 이루어졌다고 한다.
9. 2019년 3월 23일 보스톤에서 열린 150주년 기념 대회에서 총회세계선교국의 국장인 토마스 캠퍼는 전신기관의 가부장적인 사고로 인해서 여성의 사역이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특히 1964년 구조 재조정이 됐을 때에 여성의 조직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타라 반스, “150년을 기념하며,” 리스판스 잡지, 2019년 7월-8월, 27-28쪽.
10. 바바라 이 캠벨의 <내일의 중간에서>, 뉴욕: 여성국, 총회세계선교국, 연합감리교회, 1983년의 5-6쪽, 147-48쪽, 167쪽을 보라. 바바라 이 캠벨의 “여성의 선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새 세상 전망 잡지, 1990년 9월-10월, 20-27쪽 도 보라. archives.gcah.org/pdfpreview/bitstream/handle/10516/8771/1990-09-10-Sept-Oct-NWo.pdf?sequence=1, 2019년 9월 15일 접속.
11. 아서 제이 무어, 베티 톰슨, 바바라 이 캠벨, 그리고 다른 저자들이 1990년 새 세상 전망 잡지 (총회세계선교국, 연합감리교회, 1990년 9월-10월)에 쓴 글들을 보라. archives.gcah.org/handle/10516/8771, 2019년 9월 15일 접속.
12. “전국선교기관의 역사적 발달” (여선교회 전국사무실, 미출간, 2019년 5월)도 함께 보라. 2019년 5월의 미션 유 대회에서 수업 인도자들에게 배포되었다.

13. 테레사 후버, <베일을 벗은 얼굴>, 뉴욕 여성국, 총회 세계선교국, 1983년, 49쪽; 불루,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 113쪽.
14. 샘 호지스, “연합감리교회 다음 계획은 성소수자에 대한 제한을 종식할 것이다,” 달라스: 연합감리교회 뉴스, 2019년 8월 19일. umnews.org/en/news/umcnext-plan-would-end-lgbtq-restrictions?fbclid=IwAR3A9A4eeJoiv1uHO94RuNk5SUWdOEjYDtXsWIoG--Mqc5UEe5kVpVw2Mp0, 2019년 8월 19일 접속; 연합감리교회 다음, 2019년 8월 19일. umcnext.com.
15. 샘 호지스, “두명의 감독이 교단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제시하다,” 달라스: 연합감리교회 뉴스, 2019년 7월 10일. umnews.org/en/news/two-bishops-offer-plan-for-denominations-future.
16. 데이비드 에이 바드 감독과 스콧 에이 존스 감독, “새로운 형태의 일치: 2019-2022년의 앞으로 전진하는 전략,” 2019년 7월 8일, 2쪽. cdnsc.umc.org/-/media/umc-media/2019/07/10/15/22/2019-308-a-new-form-of-unity.ashx
17. 샘 호지스, “교단 분리를 위한 계획들,” 달라스: 연합감리교회 뉴스, 2019년 8월 13일. umnews.org/en/news/group-drafts-separation-plan-for-denomination. “인디애나폴리스 계획의 기본 초안,” 2019년 8월 8일도 함께 보라. cdnsc.umc.org/-/media/umc-media/2019/08/12/20/12/Basic-Provisions-Indianapolis-Plan-2019, 2019년 9월 19일 접속.
18. “인디애나폴리스 계획의 기본 초안,” 2019년 8월 8일, 2쪽. cdnsc.umc.org/-/media/umc-media/2019/08/12/20/12/Basic-Provisions-Indianapolis-Plan-2019.
19. 연합감리교회 앞으로 나가기, “우리에 관하여, 짧은 역사,” um-forward.org/about-us, 2019년 10월 3일 접속.
20. 연합감리교회 앞으로 나가기, “새로운 감리교단들의 탄생,” um-forward.org/new-plan, 2019년 10월 4일 접속.
21. 연합감리교회 앞으로 나가기, “새로운 감리교단들의 탄생.”
22. 에밀리 크레몬스, “케넥셔널 테이블의 미국 지역 연회 법안,” 커넥셔널 테이블, 연합감리교회, 2019년 9월 12일. umc.org/who-we-are/connectional-tables-us-regional-conference-legislation-now-available, 2019년 9월 13일 접속.
23. “가제: 미국 지역 총회 창설,” 커넥셔널 테이블, 9쪽. s3.amazonaws.com/Website_Properties/connectional-table/images/USRC-Petition-OnlineCopy.pdf
24. 타라 반스, 29쪽.
25. 대화 자료, 미출간, 뉴욕: 여선교회 전국 사무실, 2019년 9월.
26. “여선교회가 성소수자 청소년의 자살을 막기 위해 자금 지원을 하다,” 리스판스 잡지, 2019년 9월-10월, 36쪽.

저자 소개

줄리아 툴로크 (Julia Tulloch)는 여선교회의 전국 사무실에서 섬긴 후 은퇴했다. 주로 미국 내의 연회 훈련과 지도력 개발 사역을 했고, 아시아의 여성들을 위한 사역도 한 적이 있다. 연회의 선교 학교와 (이전의) 지역 선교 학교의 지도자로 섬긴 바 있고, 기획팀의 스태프 컨설턴트로 일했다. 툴로크는 지도력 개발 총무 자격으로 여러 상황에 처해 있는 연회와 지방의 지도자 훈련과 개발 전략을 인도했다. 전국 사무실에서 일하기 전에는 서펜실베니아 연회 여선교회를 교회, 지방, 그리고 연회의 차원에서 모두 섬겼다. 두개의 전국선교기관의 이사, 총회사회부의 이사, 지역총회와 총회의 대의원, 지역 교육국의 이사 등을 지낸 바 있다. 펜실베니아 주 미드빌 소재의 앨리게니 대학에서 종교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받고, 일리노이 주 졸리엣 소재의 세인트 프랜시스 대학에서 성인과 연장 교육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뉴욕의 성바울과 성안드레 연합감리교회의 여선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